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독일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 한 잔을 앞에 놓고 두 세 시간씩 토론하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는 처음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도 토론을 벌이는 것을 예외로 알고 있다.

나도 심야토론의 애청자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지난 번 대선과 탄핵사태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토론에 귀를 기울였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는 수도 팔통틀

토론보다 설득, 설득보다 경청을

을 나 같으면 이런 명쾌한 논리로 한방에 날려버릴 텐데, 하고 아쉬워하곤 하였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토론 프로그램이 시들해져서 예전처럼 찾아서 보지 않게 되었다. 우선 토론에 의해 뭔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탓이고, 토론 자체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말싸움 이상이 아니라느 느낌 때문이다.

공을 잡으면 무조건 거친 태도로 쓰러뜨리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재미가 없다.

경험에 따르면 노사협상이나 등쪽급 협의회는 물론이고, 무슨 설명회·간담회·총회 같은 데서도 미리 결론은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기가 제기되지 않고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제압해서 이쪽 주장을 관철시키면 주최측은 성공이고 승리라고 호명해한다.

미련인데, 그래야 상대방을 제압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목적은 합리적인 '타협'

따지고보면 토론의 궁극적 목적은 승부나 설득이 아니라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명쾌한 논리적 설파나 재치있는 논박은 시청자나 방청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책임 있는 정책결정권자나 고위 관리의 '아, 그 사람 똑똑하고 말 잘 하네' 라는 평가보다는 '아, 저렇게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걸 보니 겸손하고 성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심야토론에 출연한다고 한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을 불안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라는 질책보다는 '아, 그렇게 힘든 신중 몰랐습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효숙 문제' 한나라당 정치적 결단 내려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원천무효' 당론을 고집하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임명동의안 처리와 법사위 청문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9월 정기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전효숙 사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인정돼 왔던 절차에 관한 법적 논란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4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해 헌법과 국회법상의 절차 논란을 일정 부분 치유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 사상 초유의 헌정기관의 수장 공백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사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법사위의 헌정정조처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일단 청와대가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의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찬반견해를 밝히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헌재소장 공백을 장기화시킨다면 다른 정제적 목적을 가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발목잡기식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야 3당과 공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권, 정계개편보다 민생부터 챙겨라

정치권에서 정계개편론이 불거지고 있다. 아직 군불때기 수준에 불과하지만 설이 하도 부분부터는 경계해야 한다. 대선정국이 다가올수록 정계개편 논의는 본격화될 것이다.

정계개편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열린우리당에선 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를 아우르는 민주개혁 대연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전직 당의장 등 원로그룹도 가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과의 정계개편은 아무리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여당은 정권 재창출 운운하며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민공조' 배경에는 두 차례의 대선에서 패배한 과거가 있다. 호남의 지지를 제고자 정권 탈환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정계개편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계개편론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계개편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권은 과거의 술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 정계개편을 국가의 장래보다는 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온 고질적 병폐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치권은 정계개편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유혹이 강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대선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대선과 각종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들은 정계개편보다는 엉망진 민생부터 챙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 수준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부문이 패배한 과거가 있다. 호남의 지지를 제고자 정권 탈환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정계개편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올해 국내 여자 프로골프계를 평정하고 있는 최고 스타는 신지애(18·하이마트)다. 시즌 2승을 거두며 2억3천393만 원으로 상금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사상 최단기간 상금 3억원 돌파에도 도전하고 있다. 대선배인 박세리가 1년5개월8일 만에 달성했는데 현재의 기량이라면 기록을 깨는 것은 시간문제다. 평균타수가 69.71타로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자신있는 분위기가 하고도 했다.

신지애와 함평CC

올해 상금왕과 다승왕, 최우수선수 등 각종 개인상도 모두 휩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내 여자골프 1인자인 그의 신분은 고교생이다. 이 고장 함평골프고 3학년으로 프로 1년차 새내기다. 그는 지난해 11월 프로에 데뷔한 후 첫 라운딩을 자신의 학교가 있는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했다. 지역 최고의 스포츠 스타라 팀을 밀착인 타워하는 광주일보 스포츠 피쳐러의 취재에 응해 자신의 골프기량을 맘껏 뽐내기도 했다. 그때 그는 "내년 1~2개 대회에서 우승을 노린다"고 말했다. <이승민·순천시 교량동 함평골프고 3학년 신지애>

장타자에 정교한 숏 게임과 퍼트까지 최상의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그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KPGA 정규투어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다시 함평다이너스티CC를 찾는다. 송보배와 김지영, 홍진주, 홍란 등 내로라하는 국내 정상급들도 대거 참가한다. 이번 주말 잠시 골프채를 놓고 시골(?)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한국 톱 프로들의 호쾌한 드라이버샷과 정교한 아이언, 치밀한 홀 공략법 등을 감상하는 것도 주말골퍼들에겐 소중한 기회일 것 같다. <이현호 체육·여론대부장 khh@kwangju.co.kr>

NGO 칼럼

이경희



광주시 동구 계림동 구(舊) 시청은 1967년 경양방죽을 매립, 그 땅위에 들어서 지난 30여년 동안 시청사로 사용되었다. 상무지구로 시청사를 옮기면서 건설비의 일부를 금호건설에 대물변제함으로써 구 시청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기업에 옮겨졌다. 지난해 (주)필하임플러스는 금호건설에 구 시청부지를 사들여, 이곳에 대형 마트를 만들 예정이다.

매립하게 되어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계림동 구 시청사의 대형마트 신축으로 인해 광주지역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대인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영세상인들의 몰락, 지역 자급의 역외유출 등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생태적 공간으로써 가치가 있는 경양호를 장기적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유 재산인 구 계림동 시청사부지를 행정이 재매입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설 구 시청부지는 세종 22년인 1440년 만들어진 대규모 인공호수인 경양호가 있었다. 경양호는 현재의 불로동 인근에서 물을 취수하여 충장로, 대인동을 거쳐 물길을 끌어들이고, 물을 채웠다. 또한 경양호 인근에는 팽나무, 귀퉁나무, 왕버드나무 등이 나뭇들이 심어져, 숲과 호수가 조화를 이

경양호 복원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광주천과 경양호, 무등산에서 경양호까지의 물길을 복원하고 도심 내 수변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광

계림동 구시청 부지 경양호 복원 해보자

루어, 농업용수와 워터로 사용되었다. 경양호는 여름철 뱃놀이 사진과 겨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사진으로 규모와 용도를 추측할 수 있다.

주를 상징하는 명물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며, 구도심의 도심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경양호의 매립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차 1937년 일제의 경양호 매립계획으로 일부가 매립된다. 그 당시 최후종 목사를 중심으로 '경양방죽 매립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홍수 때 수량을 조절하여 그 피해를 줄여주고, 장차 광주가 대도시로 발전할 때를 대비해서 경관이 수려한 풍지지구로 아름답게 보전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반대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일제는 경양호 전체를 매립하려는 계획을 일부수정하여 2/3가량이 매립, 1만6천여평의 경양호가 남게 되었다.

현재 구 시청부지는 광주에 흩어져있는 노동부산하기관이 입주하는 노동타운으로의 활용 관련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하다. 구 시청부지의 소유를 행정이 갖게 되면, 노동도시 외에도 다양한 공공목적의 활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구 시청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 시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행정이 공동으로 경양호 복원을 준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들과 행정이 함께 경양호 복원을 서서히 준비한다면 경양호 복원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경양호 복원은 광주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역사적 흔적들을 복원하고, 광주를 타 도시와 차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교육팀장>

2차 매립은 해방 이후인 1967년 택지를 공급하고,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1만6천여평의 남았던 경양호를 모두

장례식장 넘쳐나는 조화... 검소한 장례 아쉬워

얼마 전 장례식장에 갔는데 한 빈소에 세워진 조화가 영안실과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웠다.

계 도움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내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낼 수도 없다.

밀려드는 조화를 놓아둘 장소가 부족, 아예 조화를 보낸 사람 이름만 때에 40여평 객실 3편의 벽에 걸어놓았을 정도다.

3일후엔 쓰레기가 될 조화의 처리 방법·비용 등의 부담만 안겨 주게 된다. 조화가 격도 만만치 않다. 한 번 보내는데 최소1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개라면 1천만원 아닌가.

그나마 나중에는 아예 이름만 접수하고 조화는 그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빈소를 찾아 애도하는 의미로 전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나누어야 할 미덕이다.

불필요한 장례 문화를 줄여 나갔으면 한다. <김낙형·광주시 북구 양과동>

하지만 주는 사람의 정성이 받는 사람에



달리기왕 타조



타조의 발은 긴 발가락 한 개, 짧은 발가락 한 개다. 짧은 발가락은 퇴화되어 가는 흔적일 뿐 특별한 역할은 없다. 하지만 긴 발가락은 다르다. 타조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일과 유사하다. 빨리 달리는데 적합하게 돼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타조의 발가락은 등글지 않고 뾰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가 땅에 정착하려면 천적이 없거나 강해지거나 등 그 만큼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다.

타조는 이 발가락으로 시속 90km~120km의 속도를 내며 달리는 지구상에서 지구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다. 말이 90~100km지, 타조 농장에서 1.5m 높이의 타조 등에 올라타 시속 20km 정도로 달리기만 해도 체감 속도는 자동차를 탄 것처럼 빠르다고 한다.

타조는 후자 쪽을 택했으며 선택된 무기가 바로 이 뾰족구두(?)였다. 비록 날지는 못하지만 새라는 걸 증명하는 날개도 쓸 데가 있다. 애써 커 보이려하거나 힘껏 입을 유혹할 때 춤추는데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위 '새 다리'라는 놀림을 받을 듯한 근육하나 없는 '통다리'다. 가느다란 다리는 완전 통째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의 근육도 일반 소를 못지않게 잘 발달돼 있다. 또 타조의 발가락 기능은 말발굽이

이들 춤은 앉아서 날개와 목을 좌우로 마구 흔드는 것이지만 이걸 보고 사람들은 '강강'이라는 춤을 개발해 냈다고 하지 않은가?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피해해져 가는 지방경제, '지역균형개발' 서둘러야

우리나라 산업지도를 유심히 들여다 보면 속 놀이진 뱃살처럼 비대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이 바로 수도권이다.

에 짧은층이 자꾸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지방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난히 피해하고 고갈된 모습이 보이는 곳은 지방으로, 최근 이같은 모양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닐듯 하다.

13개 비수도권 시·도 자치단체가 서울 수도권의 팽창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만 잘먹고 잘살겠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쇠락해가는 지역을 살려보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다.

사정이 이렇도인데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최근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수도권론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취업 때문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람을 지방으로 향하게 하고, 자본도 지방에 적절히 흐르게 하는 지역 균형개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이승민·순천시 교량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